

부모님 트로트 콘서트 예약하고 '인생 네컷' 사진 찍고 MZ세대 "어버이날 효도 이렇게 해요"

어버이날(5월 8일)을 맞아 MZ세대(밀레니얼+Z세대)의 어버이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다양해졌다. MZ세대의 효도는 카네이션 꽃 선물 등 전통적인 방식보다 부모님에게 경험과 추억을 선물하는 '실질적'인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추세다.

본인이 앞서 경험해본 뒤 좋으면 부모님을 모시고 가는 방식, 또는 부모님의 '덕질'과 '트렌드'에 맞게 효도를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에 있는 여성 전용 세신샵(때를 미는 곳)은 딸과 엄마가 함께 세신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다.

기본 세신부터 아로마 스팀 세신 코스까지 다양하며 세신과 전신마사지, 피부관리까지 진행한다. 가격은 5만원부터 10만원대까지 다양하다.

이곳 주 고객은 20대 중후반부터 30대 초반으로, 주로 딸들이 먼저 방문한 뒤 좋다고 느끼면 엄마를 모시고 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산구 우산동 대형마트 안에 있는 네일샵에는 손케어와 젤네일을 받기 위해 찾은 엄마와 딸들로 늘 북적인다. 엄마 손을 잡고 오는 딸들도 있지만 자식들이 이용권을 끊어놓으면 부모님이 편하게 찾아와 네일 서비스를 받고 가기도 한다.

광산구 신가동의 한 피부과 관계자 역시 "주로 장성한 딸들이 결혼 등 특별한 행사를 앞두고 왔다가, 엄마를 모시고 재방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고 말했다. 부모님 '힐링' 차원에서 함께 찾

카네이션 선물 전통방식 대신 경험 선물 '실질적' 방식으로 네일·마사지샵 부모님과 동행 트렌드 맞춘 효도에 만족 높아

는다는 것이다. 동구에서 1인 마사지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관계자도 30대 여성이 60대 부모를 모시고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귀띔했다.

부모님의 '덕질'을 위해 자식들이 직접 티켓팅에 나서는 경우도 있다.

부모님들이 주로 좋아하는 트로트 예능 프로그램이나 남진, 임영웅, 조용필 등의 단독콘서트가 그 예다.

앞서 광주에서는 지난 6일 광주여대 유니버시아드 체육관에서 '불타는 트롯맨' 전국투어 콘서트에 나서는 경우도 있다. 부모님의 '덕질'을 위해 자식들이 직접 티켓팅에 나서며 오는 6월 10일에는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미스터트롯2' 전국투어 콘서트가 개최된다.

장성군 동화면에 사는 지현석(30)씨는 트로트를 좋아하는 부모님을 위해 오는 27일 대구 스타디움 주경기장에서 열리는 '2023 조용필&위대한 탄생' 콘서트를 예약했다. 지씨는 앞서 4월에도 KBS '트로트가 좋아'로 이름을 알린 조영섭의 '달밤음악회' 콘서트 티켓팅을 시도한 바 있다.

지씨는 "처음에는 콘서트를 대신 예약하는 과

정이 번거롭고 어려웠지만 자주 하다보니 익숙해졌다"며 "부모님이 좋아하는 가수들을 보며 행복해하시는 걸 보면 기쁘다"고 말했다.

친구들과 만나서 찍던 '네컷 사진'을 부모님과 함께 찍는 것도 트렌드에 맞춘 효도 방법 중 하나다.

곡성에 거주하는 서상준(29)씨는 가족들과 외식하러 광주에 왔다가 부모님과 '인생 네컷' 사진관에 들어갔다.

서씨는 "사진을 찍을 때부터 들떠 계시던 엄마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는다"며 "다음에 또 찍자며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까지 설정해두고 식탁 유리에 끼워두신 것을 보며 더 자주 찍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진관처럼 각 잡고 찍는 게 아니라 보니 훨씬 자연스러운 부모님의 모습을 담을 수 있어 좋았고 젊은 세대인 나보다 포즈를 자연스럽게 잘 취하셔서 놀랐다"고 말했다.

친구들과는 만나면 항상 찍지만 부모님과는 처음 찍어본다는 김예지(여·24)씨도 부모님의 반응에 가족과 함께 사진 찍는 재미에 푹 빠졌다. 김씨는 지난날 어머니와 식사 후 인생네컷 부스를 발견하고 용기를 내 먼저 찍자고 제안했다.

김씨는 "부모님 반응이 너무 좋아 할머니, 할아버지와 찾은 담양 메타세쿼이아 길에 있는 네컷 사진 부스에서도 함께 사진을 찍었다"며 "요즘엔 이런 것도 있냐는 할머니의 말에 팬시리 부듯했다"고 전했다.

/김디안 기자 kdi@kwangju.co.kr

방직공장 근로자 출근하던 철다리 '발산 뽕뽕다리' 48년만에 재개통

광주 서구 발산마을~임동 방직공장 65m 인도교... 11일 개통식

1960년대 광주시 서구 양동 발산마을 방직공장 여자 근로자들의 출퇴근길을 책임지던 '뽕뽕다리'가 48년만에 재개통한다.

광주시 서구청은 오는 11일 광주시 서구 양동 발산마을 일대에서 '발산 뽕뽕다리' 개통식이 열릴 예정이다라고 7일 밝혔다.

발산 뽕뽕다리는 발산마을과 북구 임동 전남방직·일신방직 부지 사이에 세워진 길이 65m·폭 5m의 인도교로, 지난 2021년 6월에 착공하고 지난달 완공했다. 광주시와 서구청·북구청이 총 29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며 서구청이 공사를 주도했다.

이곳에는 지난 1975년까지만 해도 구멍 뚫린 철판을 엮어서 만든 임시 교량이 있었는데, 다리에 동그란 구멍이 뽕뽕 뚫려있었다는 뜻에서 시민들은 '뽕뽕다리'라고 불렀다.

옛 뽕뽕다리는 1960년대 방직산업이 호황이던 시절 전남방직·일신방직 여자 근로자들이 애용했다. 여자 근로자들은 공장 인근의 값싼 산발산마을에서 주로 거주하면서 출퇴근길에 옛 뽕뽕다리를 자주 이용하곤 했다.

옛 뽕뽕다리의 설치 시기와 설치 주체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려진 바가 없는데, 방직공장 측에서 여자 근로자들의 편의를 위해 세웠다든 설과 전남도 산하기관이 세웠다든 설 등이 있다.

옛 뽕뽕다리는 지난 1973년 인근에 발산교가 세워진 뒤로 이용이 차츰 줄다가 1975년 광주전 흥수로 떠내려가는 바람에 자취를 감췄다. 서구청은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역사 문화자원을 발굴하고 발산마을을 활성화하기 위해 뽕뽕다리의 재건립을 추진했다.

난간을 구멍 뚫린 철판 형태로 만들어 광주전에 비친 교량의 모습을 통해 옛 뽕뽕다리를 연상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또 코노피와 전망대, 야간 조명시설도 설치했다.

서구 관계자는 "발산 뽕뽕다리가 광주전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뽕뽕다리를 통해 발산마을이 구도심 활성화의 좋은 예로 거듭나고 문화관광 명소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조기 등교·야간자율학습은 인권 침해"

광주 교육단체, 인권위 진정 제기

광주지역 교육단체가 조기 등교와 방과후 야간자율학습에 대해 학생 인권 침해를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고 나섰다.

광주학생살리기교육연대는 7일 "광주시교육청이 조기등교·야간보충수업 금지 조항이 담긴 '정규교육활동 기본 계획'을 폐지해 성적만 강요했던 시대로 돌아갔다"며 "이정선 교육감 부임 이후 강제적인 조기등교와 방과후 야간자율학습이 재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연대에 따르면 광주지역 인문계 고교 10개교 중 6개교가 폐지됐던 '0교시 등교'와 '야간 보충

수업'을 추진하고 있다.

단체는 "학생들은 정규적인 교육과정 이외의 자발적이고 명시적 동의없이 이뤄지는 방과후 프로그램, 자율학습 등 강제적인 교육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의 학생인권조례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권리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자율성"을 주장하지만 학생들은 보충수업 결석 시 교사의 질타를 받고 학원 시간을 강제로 조정해야 하는 등 '강제성'을 부여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단체는 시교육청에 강제학습 부활에 대해 학생·학부모, 교사들에게 사과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디안 기자 kdi@kwangju.co.kr

"무등산 평두메 습지, 광주 첫 '람사르 습지' 지정"

광주 북구, 환경부에 협조 공문

무등산 '평두메 습지'를 광주 최초 '람사르 습지'로 지정받기 위해 광주시 북구가 발 벗고 나섰다.

북구와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는 지난달 28일 광주시 북구 화암동 530번지 일대 평두메 습지를 람사르 습지로 등록하기 위해 환경부에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7일 밝혔다.

람사르 습지란 물새 서식지 등 생태적으로 보호 가치가 인정되는 습지대를 국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맺은 '람사르협약'에 따라 보호하는 습지로, 우리나라에는 순천 동천하구와 순천만·보성갯벌, 무

안갯벌 등 총 24곳이 등록돼 있다.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 약 1.8km 떨어진 평두메 습지는 무등산 해발고도 240m에 있는 2만 2600㎡의 산지형 습지로, 768종의 멸종위기생물·천연기념물 등이 집단으로 서식하고 있어 보전 가치가 높아 람사르 습지 등록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등산 자락의 평두메 습지에는 삼·담비·수달·팔색조 등 멸종위기종이 살고 있고 큰산개구리·참개구리·도롱뇽 등 다양한 양서류가 집단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람사르 습지 지정에 유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전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문화전당 어린이날 행사 어린이날 연휴 마지막 날인 7일 어린이와 부모들이 광주시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어린이 가족문화축제 '하루편'을 관람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제안하면 거절하고!

발견하면 신고하고!

한사람의 보험비로 전국민의 경제부담 줄이겠습니다

보험사기 ZERO

고의로 보험금을 노린 생명·신체 훼손 행위 NO!

허위 사고, 허위 진단, 과다 입원 행위 NO!

브로커를 통한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NO!

고의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과다 청구 행위 NO!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처벌 사항

10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적용)

신고 포상금

적발 금액에 따라
최대 10억원 지급

경찰청
 금융감독원
 h-well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IAA 한국보험대리점협회